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5월 10일(주일) 제1048호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 ... 내리사랑에 감사

오늘은 어버이주일이다. 부모의 내리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다. 온누리교회도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전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70세 이상 성도들에게 카네이션 볼펜을 나눠 주고 양재 온누리교회는 70세 이상 성도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준다.

어버이날은 약 100년 전 미국 버지니아주 웨스턴 마을에 살던 안나 자이비

스라는 소녀가 어머니 산소에 카네이션을 심은 것에서부터 유래되었다. 그 소녀가 어느 모임에 흰색 카네이션을 달고 참석하자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다. 그 소녀는 “어머니가 그리워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을 달았다”고 말했다. 이후 그 소녀는 어머니를 잘 모시는 운동을 벌여 1904년 시애틀에서 세계 최초로 어머니날 행사를 개최했

다.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붉은 카네이션을, 돌아가셨으면 흰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미국이 1913년부터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정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관습화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했고,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명칭을 바꾸었다.

5월 비전헌금

‘청년 진로와 소명사역’ 후원

오늘 봉헌하는 5월 비전헌금은 청년 진로와 소명 미니스터리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 진로와 소명사역’을 후원하는데 사용된다. 진로와 소명 미니스터리는 전국 16개 지역 100여 군데 가정교회를 두

고 한국교회 청년들을 살리는 데 힘쓰고 있다. 진로와 소명 미니스터리에 CGNTV, 청년의 뜰, 청년목회자연합 200, 직장사역훈련센터 등 청년사역 전문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친구 같고, 삼촌 같은 교사”

서빙고 꿈사랑부 열혈교사 권혁룡, 소병문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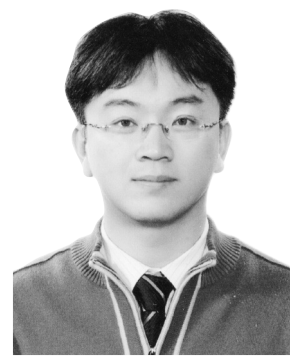
서빙고 꿈사랑부는 6~13세 장애 아동들을 위한 예배공동체다. 꿈사랑부에 가면 천사들을 만날 수 있다.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천사들의 합창도 들을 수 있다. 말 그대로 천국잔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혼자서는 제대로 말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해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바로 교사들의 헌신이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꿈사랑부 교사 권혁룡 성도와 소병문 성도를 만났다. 인터뷰 요청에 겸연쩍어 하면서 “아이들에게 친구 같고, 삼촌 같은 교사가 되고 싶을 뿐”이라며 웃는다. 그들의 미소와 꿈사랑부 아이들의 미소가 어쩔 그렇게 닮았을까.

/ 정지은 jji@onnuri.org



권혁룡 성도



소병문 성도

온누리교회는 매년 하반기에 차세대 교사를 모집한다. 이때 장애인 부서도 함께 교사를 모집한다. 권혁룡 성도는 예배 시간에 상영된 교사모집 영상을 보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한다. 차세대 교사로 지원하려던 그는 장애인 자녀 세 명을 키우는 한 성도의 모습을 보고 꿈사랑부로 방향을 바꿨다. 그렇게 꿈사랑부를 섬긴지 올해로 2년째다. 벌써 소년부 팀장까지 맡았다. 그가 꿈사랑부를 이처럼 열심히 섬기게 된 것은 처음 교사가 됐을 때 당시 팀장에게 들은 말 한마디 때문이다.

“선생님, 지금은 이 아이들에 대해 잘 모르시겠죠? 한두 달 뒤면 이 아이들에게 폭 빠질 거예요”

그는 꿈사랑부 아이들이 궁금했다. 그리고 이제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는다. 팀장의 말대로 그는 꿈사랑부 아이들에게 폭 빠졌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영혼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무너진 영혼과 마음이 꿈사랑부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회복되었다. 꿈사랑부 아이들의 순수함에 매료되었다. 그 순수함 앞에 서면 작아졌다.

그에게는 특별한 아이가 하나 있다. 지원이라는 아이다. 지원이도 지원이지만 그의 부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사실 그의 큰 아이도 장애가 있다. 아이의 장애 때문에 움츠려두고 숨으려 했다. 그런 그가 지원이의 부모에게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다.

“선생님은 저희보다 더 힘드실 거예요 저희는 아이가 낳 때부터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선생님은 중간에 아셨잖아요”

전화심방을 하던 중에 지원이 어머니가 한 말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위로가 찾아왔다. 지원이 부모님이 더 아팠을 텐데 남을 위로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하나님께 투정 부리던 모습이 떠올라 창피하기도 했다.

“교사 1~2년 할 거였으면 여기 안 왔어요”

그가 처음 교사 리트릿 갔을 때 한 말이다. 그는 10년 이상 꿈사랑부를 섬기는 교사가 되고 싶다. 꿈사랑부 아이들에게 아빠, 친구, 형, 삼촌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 소망이다. 그는 아이들에



꿈사랑부 아이들과 교사들의 예배 장면.

게 이턴 교사로 남고 싶다고 했다.

“꿈사랑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같은 생각과 마음. 사랑을 품은 선생님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지요. 꿈사랑부 아이들에게 그 생각과 마음, 사랑을 전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꿈사랑부는 에너지 드링크

권혁룡 성도와 함께 꿈사랑부에서 열심히 섬기기로 소문난 교사가 있다. 주인공은 바로 소병문 성도다. 그는 2003년부터 꿈사랑부(당시 사랑부)를 섬겼다. 대학 때부터 장애인들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군대를 전역하고 양재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장애인사역부서를 섬기다 2003년 서빙

고사랑부에 왔다. 2007년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잠시 교사생활을 쉬었다. 쉬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다. 돌아오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열심히 섬기는 교사로 소문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보통 꿈사랑부 교사를 하다 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그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단 한가지다.

“꿈사랑부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요”

그는 꿈사랑부 아이들을 통해 평안을 얻는다. 그에게 꿈사랑부 아이들은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아이들을 친구처럼 생각한다. 꿈사랑부 아이들을 섬기다 보면 어려움이 많다. 의사소통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했다. 바로 그것이 꿈사랑부 아이들을 이해하는 또 하

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꿈사랑부 교사로 합류하자마자 중증장애인 아이들을 맡았다. 당시에도 남자 교사가 많지 않았다. 여자 교사들은 남자 교사들에 비해 아이들을 다룰 물리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인 그가 초등학교 2학년을 맡았다. 공격성이 있는 학생 때문에 애를 먹기도 했다.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었다. 그런데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정신적으로 평안을 얻기 때문이었다. 꿈사랑부 아이들과 있다 보면 사회생활 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불안이 사라졌다.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사람들을 순수하게 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평안을 느꼈다. 그토록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꿈사랑부는 그에게 에너지 드링크 같은 곳이다. 그만큼 많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다. 아이들과 캠프를 갈 때가 특히 힘들었다.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밥잠을 설치기 일쑤다.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 있다는 불안감에 힘들어하기도 한다. 그 아이들을 달래려면 뜬 눈으로 밤을 새는 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아이들과의 친밀감을 눈으로 확인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아이들이 자라서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올라갈 때면 아쉽지만 그들의 성장이 반갑고 대견스럽다. 부서를 이동한 아이들이 알아보고 인사해줄 때면 살맛이 난다.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작은 바람이 하나 있다. 꿈사랑부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다. 그는 꿈사랑부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하고 교회생활 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15년, 20년 이상 교사로 섬기면서 꿈사랑부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망이라고 했다.

■ 서빙고 꿈사랑부(미취학~초등 6학년)

주일 오전 9시 신관 302호

문의: 정계희 팀장 010-7727-8347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의 임재

출 33:12~23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땅을 여행하는 동안 친히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행할 때 함께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즐거울 수도,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행을 갔는데 룸메이트가 하나님이라면 환호성을 지르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함을 느끼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한 두 시간 예배당에서 만나는 것은 괜찮지만, 함께 방을 쓰면서 여행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굉장히 완고하고 엄격하고 냉혹한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이 많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도 용납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좋으면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고하고, 예민한 이기주의자가 아닙니다. 때로 징계도 하시지만 사랑으로 미소 짓고, 손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집안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진멸 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와 동행하는 인생은 기쁘고 즐거운 여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편재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는 분이지만 모든 곳에 임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것은 기쁘게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지옥에는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환영하고, 동행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

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 15:1).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구나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이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그분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실 것이 아니었다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규례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간혹 나타나십니다. 족장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실 집을 만들라는 명령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더 지속적으로 임재하기 위해 백성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이 깨질 뻔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중보기도

출애굽기 32장부터 33장까지 모세의 중보기도가 세 번 나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질 뻔한, 깨져야 마땅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의 신이라고 숭배하자 하나님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할 때 모세가 진노를 거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진노를 거둬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거

둬졌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두 번째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기도할 때에는 아름다운 언어를 썼는데 내려와서는 엄청난 진노를 쏟아냈습니다. 금송아지를 녹여 백성들에게 먹이고, 돌 판을 던지는 등 매우 흥분했습니다. 모세는 그가 운데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이 백성을 용서해주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끊길지라도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백성을 구원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겨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모세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이 바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모의 두 번째 중보기도는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십시오’ (출 32: 31~32).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주시고, 가나안을 향한 여행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재하심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회복이 목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이 백성들은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네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여자 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1~3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 인도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행하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임재하지 않겠다고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속 좁은 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동행하지 않겠다고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면 도중에 멸망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임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로부터 간접을 받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해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용서한 사람과 동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제받고,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증거로 자신들이 치장하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졸골 말씀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12~13절).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 백성들을 향한 중보기도를 이어갑니다. 11절을 보면 모세가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음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는 공격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편에 계속)

가정의 달 기획

1. 효(孝) 2. 부부 3. 가정 4. 스승



예수님은 효자셨다

효(孝),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에 버금가는 가치
인간관계 첫 계명 ... 효가 무너지면 윤리가 무너진다

지난 1월, 미국에서 단돈 200달러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총으로 쏘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미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패륜범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의 눈길을 끈 이유는 이 부자(父子)가 미국사회 최상류층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재력이 집안이었기 때문이다. 사연인즉 이렇다. 토머스 길버트 주니어(아들)는 유명 사립대를 졸업했지만 별다른 직업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매달 집세 2,400달러와 생활비 600달러를 받았다. 아들의 허랑방탕함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용돈을 400달러로 줄이겠다고 했고, 이에 격분한 아들이 아버지를 총으로 쏘 죽였다. 단돈 200달러 때문에 패륜을 저지른 것이다.

우리나라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어르신보호전문기관 두 곳에서 지난해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다. 자녀에 의한 학대가 무려 62.1%나 됐다. 아들이 40.9%, 배우자 17%, 딸 15.4%, 기관 7.3%, 며느리 5.8% 순이었다. 효(孝)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이다.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성경에서 말하는 효의 의미가 무엇이고, 크리스천이 왜 효를 실천해야 되는지를 되새겨보자.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아아 애달프다 부모님이시어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시었다 그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넓은 하늘도 끝이 없네.”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시경(詩經)에 쓰여 있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렸다. 그만큼 효를 강조하는 나라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인간교육을 강조해왔다. 인간교육의 핵심이 바로 효(孝)다. 효는 한국인의 윤리와 도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 효사상을 논하는데 유교적 배경을 빼놓을 수 없다. 유교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사서삼경’(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주역)에는 효에 대한 비중이 가장 많다. 효는 유교도덕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삼강오륜(父爲子綱) 이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 君爲臣綱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 夫爲婦綱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의 처음도 효다.

공자도 효를 강조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는 효경(孝經)을 통해 공자와 제자들의 효에 대한 사상을 집대성했다. “효는 덕의 근본이며 가르침이 생겨나는 근본이다. 신체와 머리털과 피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이것을 훼손시키지 않음이 효의 시작이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다음으로 임금을 섬기고, 끝으로 입신하는 것이다.” “무릇 효는 하늘의 법도이며 땅의 의리이며, 백성의 행할 길이다.”

맹자도 효를 인(仁)을 행하는 근본이라고 가르쳤다. “섬기는 일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것인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큼이 된다.” “인(仁)의 실체는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며, 의(義)의 실체는 형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교에서의 효는 모든 행위의 근본이며, 인을 실천하는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교에서의 효는 부모에 대한 존경을 넘어, 선조와의 관계, 자손과 일족과의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선조...증조-조부모-부모-나-아들-손자...후손’이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조상의 제사, 부모 공경, 자손을 낳는 일 등이 모두 효의 개념에 포함된다. 효를 행함으로써 자손을 낳고, 조상께 제사지냄으로써 조상을 재생(再生)시키며, 자신이 언젠가 죽음을 맞겠지만 자손과 일족에 의해 이 세상에 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고, 조부의 생명이고, 나아가서 먼 먼 조상의 생명인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백 년 전에도 살아 있었다는 것이 된다. 쉽게 말해 효를 다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가능성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효(孝)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무엇일까. 제사 문제를 두고 일부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성경은 강력하게 부모공경을 명령하고 있다. 그만큼 효를 강조한다.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여길 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 중 제5계명이 효를 강조한다. 제5계명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 중 첫 번째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절대로 살인할 수 없고, 간음할 수 없고, 도둑질할 수 없고, 이웃의 것을 탐낼 수 없다.

부모를 치는 자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명하고 있으며(출 21:15, 레 20:9),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신 27:16). 잠언에는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격언이 반복되어 있다(13:22, 15:20, 30:17 등). 셈과 아벳, 요셉, 뭇 등을 통해 효를 행함이 하나님의 뜻이며, 효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신약에서도 효에 대한 강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델로 삼을만한 효자셨다.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도와드리며 효를 실천하셨다(마 13:55, 막 6:3).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는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말에 순종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마리아의 노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길 정도로 제5계명에 순종하셨다(요 19:26-27).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말씀에 아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십자가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원망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시고(마 26:36-39) 인간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다.

바울도 여러 서신을 통해 효를 강조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엡 6:1-3).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양육으로서의 효’를 강조했다.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위와 우위를 앞세워 감정적으로 그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첫 계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훈계해 자녀들이 제5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효에 대한 권면(딤후 5:4), 불효에 대한 경고(딤후 6:1-3, 딤후 3:2)도 있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닐지라도 부모에 대한 효를 전제하고 있는 구절(딤후 5:1-2, 히 12:9)도 있다. 성경이 효를 배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다.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경 곳곳에 효를 강조하는 교훈들이 많다. 이는 성경이 효를 강조하고, 부모공경을 인간관계의 으뜸 계명으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부모공경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들이 있다. 마치 효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 같은 표현들을 살펴보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순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눅 9:61-62).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마 10:34-36).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6-27).

예수를 따르기 전 가족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겠다는 것조차 거부하셨다. 열왕기상 19장 19~21절에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 전 부모에게 작별을 고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나온다. 엘리사의 요청에 엘리야는 그렇게 하도록 수락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했다. 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지체도 허락하지 않



으셨다(마 8:21~22).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족간의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왔다고도 말씀하셨다. 자신을 따르려는 자는 부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심지어 복음을 위해 부모까지도 버려야 한다고 하셨다(막 10:29-30). 육신

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도 했다(마 23:9).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도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

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제자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자기희생이 요구되는 제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따르려

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설명하는 것이다(눅 14:26-27).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역이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모 뿐 아니라 자기 목숨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절대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수사학적인 표현을 쓴 것이다. 일종의 충격 요법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의 우선성과 긴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비교대상을 부모에 대한 태도로 삼았다. 이는 예수님이 효를 경시한 것이 아니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공경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버금가는 가치로 여겼다는 반증이다.

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사회윤리도 무너지고 있다. 상상도 못할 패륜범죄가 날마다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다. 왜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인간교육의 시작과 끝인 효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효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 전통적인 효사상과 유교적 효사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효를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효의 모범을 보이셨다.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공경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행상을 닮아가려고 애쓴다.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예수님은 효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 그리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

효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요 도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관계 첫 계명으로 효를 명령하셨다. 효가 무너지면 인간관계가 무너진다.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윤리가 무너지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한다. 예수처럼 살라는 명령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효자였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니다”

《어머니, 부치지 못한 1000통의 감사편지》
박점식 저 | 올림 출판사 | 13,000원

홀어머니 밑에서 유복자로 자란 흑산도 섬마을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중학교 때부터 술과 담배를 입에 댔다. 고등학교 진학을 꿈꾸기 어려운 형편에 공부는 해서 뭐하냐는 마음이 가득했다. 홀어머니는 몸이 부서져라 일해 아들을 물의 고등학교에 보냈다. 방학 때 섬에 돌아온 아들이 친구들과 이웃집 염소를 잡아먹고 육지로 돌아가자 어머니는 하숙방을 찾아와 책을 모두 불사르며 말했다.

“내가 경우 바르게 살라고 했냐 안했냐? 사람이 나쁜 짓을 험시로 공부해 해서 뭣하냐!”

아들은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상경했다. 막일을 하며 주경야독으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열심히 일해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가족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직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상사가 됐다. 그때 어머니가 차매에 걸렸다. 선을 훌쩍 넘은 소년은 차매 걸린 어머니에게 1000통의 감사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부치지 못한 1000통의 감사편지를 책으로 엮었다.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이야, ‘어머니는 사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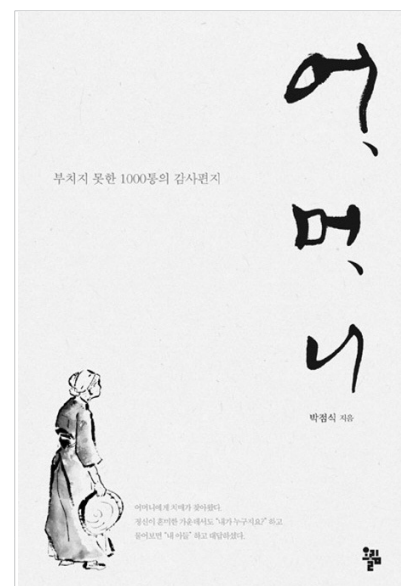
였네’, ‘어머니는 찬밥을 드셔도 되는 줄 알았다’, ‘모든 것을 주신 어머니’ 등 제목만으로도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이 듬뿍 묻어 있다.

그 소년은 중학교 2학년 때 흑산도 무장공비 사건이 터진 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포격 소리가 요란했다. 어머니는 이불을 더 꺼내서 어린 아들에게 덮어주시고 자신은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셨다.”

목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신 세상의 모든 어머니께 고백하자.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등산 및 여행 가던 날

가족과 함께 역사를 만나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
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날 노래가 떠들썩하게 울려 퍼
진 지난 5일,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뜻
깊은 가족행사를 개최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등산 및 여행 Family'가 바로
그것이다. 등산 및 여행이라고 이름 붙
인 것은 가까이 있어 소중함을 잘 모르
는 지역을 찾아가는 의미다.

남양주에서 가까운 경기도 연천 일대
유적지와 숨은 비경을 찾아 떠난 여행이
었다. 재인폭포, 구석기 유적지, 송의전,
호로그루성을 둘러봤다. 문화유산해설가
가 그곳에 깃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까
지 들려줘 더욱 특별했다. 남양주B공동
체 가족들이 떠난 여행 이야기가 지금부
터 시작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재인폭포 앞에 선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활기찬 모습.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 여기는 남양주 평내동 전
세버스 2대가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곳에 남양
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이날
은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등산
및 여행을 떠나는 날이다. 할머니부터 어린 손주들
까지 연령대도, 구성원도 다양한 100여 명의 성도
들이 함께 했다. 이번 여행을 기획한 의도가 무엇
일까? 이재우 총무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하려고
여행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마침 문화유산해설가
로 활동 중인 임찬웅 집사의 재능기부가 더해졌다.
오늘 여행이 더 특별했던 이유는 임찬웅 집사의 재
미난 역사 설명이 곁들여졌기 때문이다.

첫 방문지는 재인폭포다. 이곳은 슬픈 전설이 서
린 곳이다. 재인(才人)의 아내를 탐한 원님이 이 폭
포 절벽에서 재인으로 하여금 광대줄을 타게 한 뒤
그 줄을 끊어 죽게 했다. 재인의 아내는 남편의 원
수를 갚기 위해 원님의 코를 물어뜯고 자결했다.

그 일이 있는 후부터 이 마을은 재인의 아내가 코
를 물어뜯다 하여 ‘코문리’라 불리게 되었다. 지금은
어휘가 변해 ‘고문리’(古文里)가 되었다. 이곳은
주상절리 절경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비경(秘境)이다.

재인폭포는 경기도 연천 일대 유적지의 시작에
불과했다. 한탄강과 임진강이 교류하는 연천은 북
한과 가까운 지역적 특성으로 군부대가 많고, 지뢰
매설지역도 많다. 화산폭발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주상절리가 곳곳에서 빼어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구석기 유물뿐만 아니라 청동기 유
물인 고인돌까지 발견된 지역이다. 지질학적으로
도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곳이다.

두 번째 방문지는 전국리 구석기 축제 현장이다.
어린이날을 맞아 수많은 관광객들로 가득했다. 주

먹도끼 만들기, 주먹도끼로 돼지사냥하기, 원시적
방법으로 불 피우기 등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 임금과 신하들의 신주를 모셔놓은 송
의전을 둘러보고 호로그루성터에 도착했다. 호로
(鶴)는 마을, 고루는 성을 의미한다. 이곳은 고구려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곳이다. 역사적으로 의미
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임진강을 배를 타지 않고
건널 수 있는 곳인 만큼 당시 군사적으로 매우 중
요한 곳이었다. 이 성을 두고 고구려와 신라가 대
치했다. 지금은 당시의 치열했던 전투현장은 느낄
수 없지만, 고구려와 신라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곳곳에서 기와돌을 볼 수 있는데 붉은색 기
와는 고구려, 검거나 회색빛이 도는 기와는 신라
것이란 다. 문화유산해설가 임찬웅 집사가 잡초 사

이에서 널브러진 기와장 하나를 집어 들었다. 아무
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그 기와가 고구려의 유물
인지, 신라의 유물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윤정 성도는 “어린이날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
줘야 하나 부담이 컸었는데, 오늘 등산 및 여행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었다”고 말했다.
이재우 총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이었
다”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도 기획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정시에 어린이는 오늘 여행이 참
좋았다고 했다. 무엇이 그렇게 좋았는 질문에 이
렇게 대답했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해서 좋고, 무심코 지나쳤던
곳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배웠
거든요”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정명숙 성도(남양주 평내호평2순)

온 누리에 봄기운이 물씬 풍기던 어린이날, 남
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두 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경기도 연천이다.
남양주에서 가까운 지역이지만 생소한 곳이었
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가보겠나 싶어 동행
했다. 예상보다 좋은 날씨, 막히지 않는 도로 상
황에 감사했다. 마음도 즐거웠다.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버스에 타
서 우위를 둘러보니 매주 만나 삶을 나누는 순
식구들과 주말마다 눈인사 나누는 낯익은 얼굴
들이 많았다. 평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적었던
성도들의 이야기도 듣고, 자기소개를 하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다. 경기도 연천은
지역 특성상 군부대가 많다. 마을들은 조용하고

아담했다.

우리 순의 자랑인 역사문화해설가 임찬웅 집
사님의 인도로 재인폭포에 도착했다. 재미난 해
설을 들으면서 몇 발짝 움직였을까. 눈앞에서 아
름다운 광경이 펼쳐졌다. 청록물빛으로 채워진
호수, 우아하게 떨어지는 폭포, 이곳이 화산지대
였음을 보여주는 주상절리까지 절경이 내 눈과
마음에 들어왔다. 나직하게 들리는 물소리와 산
새소리가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
했다. 물이 떨어지면서 만들어낸 공기는 시원한
바람이 되어 얼굴에 부딪혔다. 그 청량감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재인폭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어찌면
이런 기회가 아니면 발걸음조차 안했을 곳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났다. 그런 것이 어디

오늘 하루

자연뿐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볼 생각도 못
하는 곳에 발걸음하고,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
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다시 버스에 탔다. 이번 행선지는 연천 전국리
구석기축제 현장이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
지한다는 아담과 하와가 살던 시절, 구석기 시대
유물과 당시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들이 풍성했다. 이번 여행의 주인공인 어린이들
이 가장 즐거워했다. 물 만난 고기처럼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놀이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었다.

삼삼오오 둘러 앉아 행복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고려시대 사당이었던 송의전으로 이동했다. 그
런데 그때 우리 집 셋째 정하가 품안을 파고들
더니 잠이 들었다. 나는 송의전을 둘러보는 것을

포기하고 버스에서 아이를 재워야 했다. 그 시간
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었다. 육아
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강력하
게 체험하는 것이 바로 육아다. 아이를 재우면서
보낸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은 은혜였다. 호로그
루성을 마지막으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오늘의
여행이 끝났다.

요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행적을 묵상하고
있다. 그들의 언행은 역대기에 기록되었고, 역사
가 되어 전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이라는
우리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고, 하나님께서 보
시기에 아름다운 장면이었을 것이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행복한 역사로 기록되었을 하루다.

사회문제와 교회의 역할

1. 홈리스 청소년들
2.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절벽

돌아갈 집이 없는 홈리스 청소년

연간 가출 청소년 20만 명, 무너진 가정이 원인
사회적 안전망 절실 ... 따뜻한 울타리 제공, 자활 도와야

얼마 전 15살짜리 여중생이 성매매를 하던 중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멀쩡히 학교를 다니던 평범한 여중생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경찰에 따르면 그 여중생은 부모와의 불화로 가출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길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위험하다. 여성가족부가 추정하는 연간 가출 청소년은 20만 명이다. 그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에 빠지기 쉽다. 출고 배고파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교회가 거리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거리의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먹고 살기 위해 성매매에 뛰어 들었다 목숨을 잃는 여중생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집이요? 없어요. 그런 거. 가족이요?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예요.”

A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진혁(가명, 17세)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다. 진혁에게 집은 없고, 가족은 생명을 위협할 만큼 두려운 존재다. 진혁에게 가출(家出)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 집을 잃은 홈리스(Homeless) 청소년이라는 표현이 옳다.

가출 청소년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전제된 개념이다. 이제 그 개념이 달라졌다. 그들은 돌아갈 집이 없다. 이른바 홈리스 청소년들이다. 가출 청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출 청소년이 아니라 홈리스 청소년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집 나온 청소년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립을 도와야 한다. 그동안 가출 청소년 문제는 귀가가 곧 해결이라는 사고가 만연했다. 이제는 아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 가정해체가 심각했다. 당시 영유아기를 보내며 가족해체를 겪은 아이들은 돌아갈 집이 없다. 돌봐줄 가족도 없다.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무섭고, 배가 고파 거리로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연간 20만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는 것으로 추산한다. 그 중에 홈리스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경찰청에 접수된 가출 청소년 신고건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자발적, 생존형 가출로 보고 있을 뿐이다. 대략 12~14만 명 정도로 짐작하고 있다.

날마다 생존 전쟁, 종착지는 범죄

자의든 타의든 집 나온 아이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잘 곳과 먹을 음식이다. 잘 곳과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 거리의 청소년들은 날마다 생존(Survival)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거리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

하다. 그 돈을 스스로 벌어야 한다. 문제는 그들이 미성년자라는 것이다. 부모 동의 없이는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단지 돌리거나 택배 물류창고에서 분류 작업하는 아르바이트 정도 구할 수 있다.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하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돌아갈 집도 없고, 일할 곳을 구하는 것도 힘든 거리의 청소년들은 출고 배고픈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잘 곳이 없어 옥상, 건물 계단, 공원 벤치, 24시간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에서 쪽박을 잔다. 하루 종일 먹은 거라곤 대어섯 명이 나눠 먹은 햄버거 세트가 전부다.

출고 배고픈 아이들이 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범죄다.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은 먹고 살기 위해 오토바이를 훔치고, 휴대전화 훔치고, 성(性)을 사고팔기도 한다. 이른바 조건사기라는 범죄도 스스럼없이 저지른다. 죄책감은 별로 없다.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범죄를 옹호하지는 것이 아니다. 봐주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볼자는 것이다.

거리의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지원 없이 비합법적인 활동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리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 교회가 울타리 만들어줘야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들어가 지낼 수 있는 곳은 청소년 쉼터가 유일하다. 청소년 쉼터는 일시·단기·중장기 유형으로 분류되

어 가출 청소년들의 위기 상황을 지원하고 가정 복귀 혹은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전국에 설치된 쉼터는 119개소다. 우리나라 가출 청소년 규모 추산치 약 39만 명이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청소년 쉼터도 가출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사법형 그룹홈이 떠오르고 있다. 사법형 그룹홈은 1~10호까지 있는 소년범 보호처분 중에서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만 있을 수 있다. 1호 처분은 가정(보호자)의 보살핌 속에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를 받는 처분을 의미한다. 돌아갈 집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집이 바로 사법형 그룹홈이다. 사법형 그룹홈에서는 처지가 비슷한 청소년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보살펴주는 새로운 부모의 품에서 과거를 잊고 새 출발하고 있다. 거리로 나온 39만 명의 가출 청소년들에게 돌려줘야 할 집의 모습이다. 이런 대안가정이 더 많아야 한다. 거리의 청소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입소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가출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다. 가정불화, 가정해체, 가정폭력은 청소년들의 가출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있는 것 같다. 부모의 생각과 언행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어른들이 알아야 한다. 왜 아이들이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지 어른들이 먼저 돌아봐야 한다.

“아이 하나를 길러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가 태어나 올 바로 성장하기까지 부모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가정이 해체된 청소년이라면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 줘야 할 가정이 무너진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가 해

줘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 무엇일까. 방치된 아이들을 누군가 나서서 보호를 주는 것이다. 국가와 지역사회 더불어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가출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일에 너나할 것 없이 나서야 한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역할

거리의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 무너진 가정을 살려야 한다. 가정사역을 통해 부부와 부모자녀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가정이 붕괴되면 자녀들도 무너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정을 살려야 한다.

둘째, 교회가 사회적 안전망이 돼줘야 한다. 잘 곳 없고, 배고픈 아이들이 가장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가 되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고개만 돌리면 십자가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많다. 그 많은 교회가 청소년들이 누울 수 있는 잠자리,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밥 한 공기 준다면 그들은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거리의 청소년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2020년부터는 생산인구는 줄고, 소비인구는 늘어나는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이면 지금 거리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다. 그들이 생산인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안 그래도 젊은이들이 부족한 시대가 오는데 거리의 청소년들이 자립에 실패한다면 국가적 위기에 당면할 수밖에 없다. 교회부터 거리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의 자활을 도와야 한다. 그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양재 이천선교, 호남선교 역사여행



“선교는 복음에 빛진 자가 그 빛을 갚는 것”

/ 김중호 집사(양재 이천선교 공동체네트워크 팀장)

양재 이천선교팀이 호남선교 역사여행을 다녀왔다. 양재 이천선교 실행위원과 불어 예배 장 마르탱 목사를 포함한 리더십 34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일(금)부터 1박2일 동안 광주 호남신학대 양림동산 외국인 선교사 묘지, 순천기독교전료소, 매산학교, 여수 손양원 순교기념관 등을 방문했다.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받은 은혜를 김중호 집사가 노래했다.

지난해 성탄절 예배에서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을 보았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은 2015년 새해 첫 주일설교에서 “우리는 복음에 빛진 자”라고 말씀하셨다. 복음에 빛진 자로서 반드시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조선 땅에 와서 헌신적인 희생을 보여준 다섯 명의 선교사를 소개하셨다.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딸 손동희 권사님을 초청해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반복된 선교 역사에 관한 말씀을 듣고 양재 이천선교팀은 조선에 온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선교 역사여행을 기획했다. 수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한 끝에 5월 1일부터 1박2일 동안 전라남도 광주, 순천, 여수 애양원 등으로 호남선교 역사여행을 다녀왔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양림동산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였다. 그곳에는 조선을 사무치게 사랑한 22명의 선교사

들이 묻혀 있다. 머리가 저절로 숙여졌다. 120여 년 전,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이분들에게 빛진 자다. 그 빛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 유진벨, 오웬, 웨빙, 포사이트, 윌슨 등 낮은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에서 잠들었다. 120년 넘게 이국 땅에 묻혀있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조선을 섬긴 그들의 발자취를 보았다.

“대나무로 의족한 소년이 눈에 밝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보고한 윌슨 선교사, 포사이트 선교사가 데리고 온 여자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고, 오늘날 여수 애양원이 있게 한 윌슨 선교사 사택, 오웬 선교사 기념관 등도 둘러보았다. 그리고 순천으로 향했다.

순천에서는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와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집대성해 놓은 ‘순천시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가장 먼저 둘러보았다. 이곳에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여수 손양원 목사 기념관 앞에서 찍은 단체사진.

있었다.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의 흔적, 유물들이 많았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역사는 지나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에서 보면 지붕이 십자가 형상으로 된 미국 남장로교회 조지왓츠 기념관과 순천기독교전료소 매산학교 등을 둘러보고 여수 애양원으로 향했다. 이종훈 목사님으로부터 한센병 환자 선교 특강도 들었다.

두 번째 날은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과 삼부자 묘지, 애양원 역사박물관을 둘러보는 일정이었다. 성산교회 임미숙 권사님으로부터 애양원의 역사를 들으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었다. 청각이 살아있고, 생각할 수 있고, 눈을 감쌀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했다. 실명하신 분들이 성경을 통째로 암송했다는 간증도

들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자에게는 육의 양식도 줄 수 없다며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세끼 밥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도 받았다.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도 한센병에 걸려 그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했다.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내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 흘렸다.

이번 여행은 복음의 통로로 사셨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다. 선교는 복음에 빛진 자가 빛을 갚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복음에 빛진 자다. 빛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양재 이천선교 위원회는 하반기에 다른 코스로 선교역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5월 러빙유 캠페인 ‘환경’

유미호(한국교회환경연구소 실장)

러빙유 캠페인(Loving U) 5월 주제는 환경이다.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유미호 실장이 크리스천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했다.

‘FEW’, 없음의 위기와 녹색교회 실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위기 앞에 서 있다. 식량(Food)과 에너지(Energy), 그리고 물(Water)의 위기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면 각 단어의 앞글자만 순서대로 따면 된다. ‘FEW’. 세 가지 모두 ‘거의 없음’ 지경이다. 물론 여기서의 ‘없음’은 단순히 석유와 지하수, 식량의 부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사막화, 대규모 종의 멸종에서 보듯 지구 생명 전체의 적자(Earth deficit)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지구의 신음소리를 듣고, 생태발자국 지수를 살펴야 한다. 생태적 죄를 회개하고, 주어진 것들 안에서 누리면서 신음하는 생명에게 힘을 줘야 한다. 교회가 하늘, 땅, 물, 빗들의 지속성을 위해 애써야 한다.

첫째 하늘의 지속성을 위해 애써야 한다. 하늘의 위기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화력발전과 방사능 문제를 야기하는 원자력발전에서 오는 만큼 우리는 적정실내온도와 조명, 대기전력을 최대한 절

약하고 사용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 적게 쓰는 것이 가장 큰 에너지 자원이자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계부를 쓰거나 교우들과 함께 교회절전을 짓기도 한다. 적극적으로 교회 지붕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길’이라고 비유되는 태양광 전지판을 올리기도 한다. 교회 둘레에 담장을 없애고 마당에 작은 숲을 조성하기도 한다. 하나님이 처음 불어넣어주셨던 숨이 그랬듯 자유롭게 숨을 쉬도록 돕는 것이다. 비록 작지만 생명이 숨 쉬고, 지역 주민들이 드나들며 친교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또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 자전거를 타고 세상과 교회를 오가게 한다.

둘째 땅을 위해 애써야 한다. 흙에서 난 사람은 흙에서 난 음식을 먹고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오염된 땅에서 난 음식을 먹어 몸과 마음, 영혼이 병든 것을 회개해야 한다. 더 많은 음식을 쉽게 생산하려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함

으로써 땅 속의 유익한 미생물을 죽였다. 그러다 보니 땅이 점점 생산능력을 잃고 있다. 흙을 살리고, 생명의 먹거리를 얻기 위해 주말농장이나 도시텃밭 체험하는 것이 좋다. 땅을 살리고, 좋은 먹거리 생산에 힘쓰고 있는 농촌교회와 함께 교회 밥상은 물론 성도들의 가정 밥상까지 국내산 유기농 쌀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명의 밥상을 차려 몸과 땅, 환경과 농민, 농촌을 살리자.

셋째 물을 위해 애써야 한다. 물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이 어디서 생산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버려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물을 오염시키거나 대량의 하수를 만들어 물의 순환을 끊는 일을 삼가게 해야 한다. 교회에서부터 물의 순환을 보며 물을 맑게 만드는 EM세제를 써야 한다.

넷째 빗물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 창조의 은총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은총을 충분히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한다. 주말생태교실을

열어 산과 들, 자연을 찾아가 많은 생명을 만나야 한다. 화석도시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푸른 마음을 품고, 자연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신음하는 자연과 이웃의 이름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된다. 그 동안 이웃과 자연을 배려하지 않고 물품을 구입해온 것도 돌아봐야 한다.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운동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제품(재생지 등 환경상품 및 절전용품)을 사용하는데 솔선해야 한다. 밥 한 그릇의 소중함과 굶주리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전기 없는 주일’, ‘고기 없는 주일’, ‘차 없는 주일’, ‘잔반 없는 주일’, ‘종이 없는 주일’ 등을 실천해야 한다.

온누리교회가 FEW의 위기에 처한 지구와 그 안에서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희망을 주는 녹색교회가 되어주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다시 한 번 보시고 “참 좋다”하실 만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해질 것이다.



두란노 신간 소개

아내로 산다는 것은...

〈결혼한 여자도 힐링이 필요해〉
김향숙 지음 | 두란노 | 13,000원

“많은 여성들이 행복을 꿈꾼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다. 행복을 만드는 법도 모른다. 행복에 대해 배워 본 적도 없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 상대방만 바꾸면 행복할 것이라 착각한다. 애벌레처럼 사는 것이다. 그러다 만신창이가 되고, 망가진 마음은 돌보지도 않는다.”

25년 동안 가정사역에 헌신해 온 하이패밀리 김향숙 박사가 아내로 사는 여성들을 위로하는 책을 펴냈다. 아내로 사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를 같은 여자로서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준다. 이 책은 지난 10년 동안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에서 진행해 온 세미나를 묶었다. 제목은 〈결혼한 여자도 힐링이 필요해〉다.

이 책의 저자 김향숙 박사는 남편 송길원 목사와 함께 무너진 가정의 회복을 위해 힘 없이 달려왔다. 그동안 사역현장에서 만난 여성들의 심리, 신체, 사회적 변화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썼다. 결혼한 여성들을 위한 책이다. 중년기에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결혼의 위기, 정체성의 혼돈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결혼생활을 방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솔직하게 그렸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다시금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주는 책이다.

정체성 혼란으로 힘들어하는 사모,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크리스천 기혼여성, 부부관계에 금이 간 원인과 해결책을 담았다. 갱년기를 앞두고 있거나 갱년기를 보내는 여성들을 위한 메시지도 담겨있다. 아내로 사는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과 여성사역 소그룹 리더와 멘토에게 강력 추천한다.



만화로 만나는 노아의 홍수

〈창조과학 시간 여행〉
원작 이재만, 만화 채홍범 | 두란노 | 12,000원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만화로 만날 수 있다. 이재만 선교사의 책을 채홍범이 만화로 그렸다.

지구의 지형과 기후 형성, 지층, 화석, 해저 지형, 습곡, 침식, 판구조론, 생물 분류 등 과학적 지식을 만화를 보면서 쉽게 익힐 수 있다. ‘창조과학 따라잡기’와 ‘창조과학 프리즘’ 코너도 있어 창조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볼 수 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지구와 인류가 어떤 시간을 겪어왔는지를 담았다. 성경 이야기들을 힌트 삼아 퍼즐조각들을 맞추다보면 지구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다. 성경은 지구의 지난 시간을 짚어보는 가장 좋은 길잡이다. 이 책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 신기는 성경공부를 할 때마다 과거 지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이 안 된다며 툭툴거렸다. 어느 날 창조과학 연구실에 놓인 새로운 기계를 보고 호기심이 발동한다. 기계를 이리저리 살펴보다 복잡장치를 만져보던 그때, 신기는 누군가 연구실로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뒷걸음치다 실수로 작동 버튼을 누르고 만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기계가 작동했다. 그 순간 정신을 잃었던 신기는 아주 낯선 곳에 가 있었다. 창조과학 연구실 조교로 일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G는 그곳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던 시대라고 알려준다. 신기와 인공지능 컴퓨터 G는 노아 홍수 때 일어났던 지구적인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면서 그 어마어마한 상황을 실감하게 되는데...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내 인생의 책 김성욱 목사(대전 차세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정의 달이 다가오면 사회적 관계를 돌아보게 된다. 치열하게 살다 갈등과 반목 속에서 관계의 무거운 짐이 쌓이기도 했다. 관계의 무거운 짐은 때로 회피를 낳는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회피라는 무서운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다시춘기 자녀와의 갈등, 부부와의 갈등과 이해를 이야기한다. 저자 폴 투르니에는 사람과의 관계,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오늘날 주변에서 병들어버린 가정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책은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책이다.

저자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했다.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라.” 삶속에서 빛아진 갈등은 유리에 찌든 물때를 닦듯이 세제로 수시로 닦아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닫힌 관계의 문을 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문의 손잡이를 내가 잡아야 한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도 있어야 한다. 저자는 용기를 강조한다. 관계를 회복하는 숨바꼭질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용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증폭되기 때문이다.

“과연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내가 나의 죄를 용납해줄까?”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나를 지지해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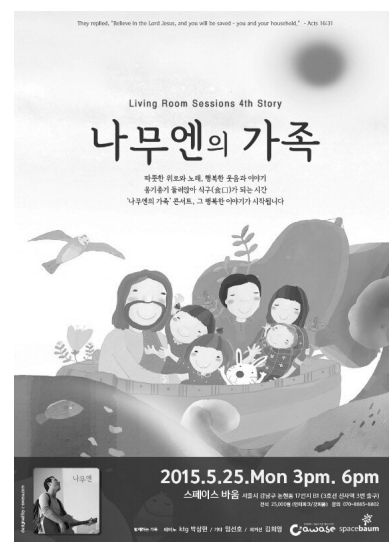
아쩌면 우리는 이해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직장생활, 순도임에서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지만 많은 경우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 스스로 관계의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먼저 닫힌 관계의 문을 열어야 한다. 관계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관심사가 되었다. 요즘 아버지와 딸의 일상을 보여주는 한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버지의 인정 어린 말 한마디와 눈길 한번을 기다리는 딸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영·유아들의 행동을 통해 부모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방송도 많다. 나를 이해해주지만 바라는 마음은 갈등을 만든다. 그 갈등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우리를 누구보다 이해하는 분이 계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날마다 말씀 통해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고 계신다.

기독교 문화 콘서트

나무엔의 가족 콘서트

5월 25일 오후 3시, 6시 스페이스 바움



CCM 아티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나무엔이 소극장에서 콘서트를 연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을 주제로 콘서트를 한다.

스페이스 바움에서 열리는 나무엔의 네 번째 콘서트다.

나무엔은 이번 공연에서 깊은 신뢰는 오히려 침묵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노래한 ‘휴식 같은 사람’,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나의 반쪽’ 등 가족을 주

제로 한 노래들을 부를 예정이다.

콘서트 티켓은 갓피플(ots.godpeople.com)과 인터파크(ticketinterpark.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2만5천원. 문의: 070-8885-8802

당회서기 정파종 장로와 함께

온누리교회 향후 30년 준비한다

5월 15일 장로수련회 ... 비전 공유 및 친교 목적



5월 15일부터 1박2일 동안 가평 교원비전센터에서 '2015 장로수련회'가 개최된다. 장로수련회는 온누리교회 모든 장로(사역, 사무, 협동 장로 포함)들이 모여 비전을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장(場)이다. 당회서기 정파종 장로를 만나 이번 장로수련회의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올해 장로수련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올해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번 장로수련회에서는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향후 30년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부 동반이 아니라 장로들만 모입니다. 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모여 나라와 교회, 사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또 지난 30년 동안 배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향후 30년을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둘째 성령집회가 열립니다.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도,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주신 많은 미션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집회를 통해 장로들 먼저 성령충만해질 것입니다.

셋째, 친교입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만 429명입니다. 장로들이 워낙 많다보니 서로를 모르

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교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장로 4명이 한 방을 쓸 계획입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를 소개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이재훈 담임목사님을 비롯해 캠퍼스 담당목사님들과 본부장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장로와 장로, 장로와 목사가 친교하면서 하나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미래 30년 비전 및 실천방안을 논의한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정책 포럼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발표한 ‘3개의 빛’(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영성,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 되는 영성)과 ‘5개의 꽃’(새로운 선교 모델,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차세대의 복음화와 양육 방안, 통일한국의 주역이 되는 교회,

거룩한 직장을 만드는 일터사역) 비전을 다시 한 번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영성과 기조가 지금까지 온누리교회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온누리교회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별로 분임토의도 합니다. 라운드테이블에서 거론된 주제를 놓고 조별로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 100분 동안 토론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제안들을 발표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다루지는 내용들이 향후 온누리교회 30년의 방향을 좌우할 비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번 장로수련회가 중요합니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하고 성숙한 분들입니다. 알레로 지난달 실시한 ‘차 없는 날’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고 감동 받았습니다. 훌륭하고 성숙한 성도님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인 만큼 온누리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장로와 목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겨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향후 30년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훌륭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맹활약

지진 피해 지역서 의료활동 및 구호물품 전달

네팔 지진 피해 현장에 급파된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의 활약이 대단하다.

지난 4일 출국한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의료팀 7명, 구호팀 15명)은 네팔 지진 피해 현장 도착 즉시 의료봉사와 구호품(쌀 10kg, 담요, 식용유, 비스킷, 라면 두 상자 등)을 전달했다.

의료활동 첫 날 오후에만 161명이 진찰을 받았고, 316개 구호품을 전달했다. 15일까지 구호품 1,120개를 전달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폭염과 싸

우고, 현지 교회에서 갈판을 깔고 자면서도 구호활동에 여념이 없다. 현지 주민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라고 한다. 구호현장에 가있는 NGO 더멋진세상 고대선 부장은 “현지들에게 기도해주면 좋아하고, 자신도 교회 다니다며 기도를 부탁하러 온 주민도 있었다”면서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사람들을 잊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네팔 후원 계좌: 하나은행

573-910009-08905(NGO 더멋진세상)

이주민 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Yes.Mission! 이주민 선교학교’에서 10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과정은 6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다양한 관점들을 배운다. 한두권, 아랍권, 불교권 등 다양한 문화와 관습 등을 공부한다. 실제적인 이론과 사례를 배우고, 온누리 M센터에서 하루 동안 현장체험학습도 한다. 이주민 선교학교 과정을 마치면 온누리 M미션 19개 외국어예배공동체에서 동역할 수 있다.

문의: 양옥진 사역자(010-3937-3927)

은빛날개 세미나 열린다

은퇴한 성도나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를 위한 ‘은빛날개 세미나’가 열린다. 6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은빛날개세미나 주최 측은 “30대 이상 성도들을 초청한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고,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비: 1만 원(교재, 간식비 포함)

문의: 조기훈 총무 010-5336-5820

선교사 일일 오리엔테이션

5월 16일 오전 10시 두란노빌딩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를 준비하는 성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열린다. 5월 16일 서빙고동 두란노빌딩 101호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선교사 일일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온누리교회 선교사로 허입 되는 과정, 선교 리더십과의 만남, 선교에 대한 헌신

을 구체화할 수 있는 상담 시간 등이 이어진다.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이메일(pass0131@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679

사회선교부, 환경세미나 개최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환경세미나가 열린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이다.

4주 동안 환경문제에 대한 강의를 듣고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이다. 5월 26일은

창조세계에 대한 성서적 이해, 6월 2일은 물과 그 위기의 현실에 대한 이해, 6월 9일은 몸과 마음, 지구를 살리는 생명밥상, 6월 16일은 지구를 지키는 10가지 습관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된다. 문의: 독곡서 팀장 010-7525-7158 최혜옥 사역자 02-3215-3436

수원 하가훈 참가자 모집

평택, 양지 성도도 참가 가능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정 훈련학교(이하 하가훈)가 열린다. 수원 성도뿐만 아니라 평택,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참석할 수 있다.

수원 하가훈은 5월 16일(토)부터 6월 14일(주일)까지 4주 동안 제일교회 안성수양관(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이현배티길 58-25)에서 진행된다. 선착순 247명을 모집하고 있다. 회비는 부부당 2만 원이다. 자녀를 동반할 경우 1

명은 3만 원, 2명 이상은 5만 원이다.

하가훈에서는 부부의 기질을 알아보는 피플퍼즐세미나, 가정제도의 목적, 자녀교육, 남편과 아내 책임, 부부치유, 크리스천의 성생활, 남녀차이, 사랑의 언어 등을 주제로 가정사역 전문 강사들이 강의한다.

문의: 이은학 팀장(010-2994-1701)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양재 만남의 잔치

날짜 : 2015년 5월 17일 / 장소 : 드림홀 / 시간 : 오후 3시 30분
기간 : 4월 1일~4월 30일까지 등록한 성도

강남A 배광영	이혜자 심 훈 제애진	과천의왕 노성숙 백인철	분당A 김종복 안경훈	서초A 김일섭	정택 안영평	박순호 이승재 이연희
강남B 강민욱	강남D 윤석권	서초B 서은혜	이귀임 조자영	서초D 송성룡	양재 이성재	조능식 편영운
김창호 박종용	이윤정 이창교	이미화 조동석	분당B 김연지	서초C 임광훈	김현옥 김혜숙	푸른누리 서연균
유숙희 이명희	최진혁		박남진 이승연	송파 김지영	문선희 박수영	이재환 홍정길

제1048호 | 2015년 5월 10일(주일)

■ 새사람선교팀 간증



재소자들이 매주 달라졌다

/ 박공 장로

재소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정도 맞지 않고, 준비도 부족했다. 할지 말지 망설임이 많았지만 믿음으로 시작했다.

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티머시켈러의 <예수를 만나다>(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공동체 일대일 양육자들에게 홍보하고 있었다.

그러던 참에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하게 되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티머시켈러는 책에서 예수님이 찾아 가시는 장면을 부각시켰다. 소망동산에 먼저 가 계셨듯이 나와 함께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게 될 동반자에게도 먼저 가 계신다는 강한 믿음을 주었다.

재소자 동반자를 처음 만났을 때 말했다. “내가 누구를 가르치겠는가. 제한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님들이 나보다 귀한데... 이번 기회에 내가 여러분께 배우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부터 시작해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우물거 여인을 찾아간 장면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장면도 만날 때 마다 되새겨 주었다.

동반자들은 매주 달라졌다. “자기중심적인 시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앞으로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현명하고 슬기롭게 행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림으로 자유로워지고, 진리를 받아드리면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배웠다는 간증도 들었다.

또 다른 동반자는 “여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느끼고 만나게 되었다”고 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고 출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 같다”면서 출소하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만난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다짐도 했다.

또 다른 동반자는 “성경을 기준으로, 양육자께서 살아오신 삶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어 이해가 좋았다”고 말했다.

역시 일대일제자양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

■ 태국에서 온 간증



“마리아 힘내! 넌 잘 할 수 있어”

/ 김마리아 권사(파타야 선교교회)

3월 21일 오후 5시는 설렘 가득한 행복한 날이었다. 어릴 적 양말을 두고 산타클로스의 방문을 기다리던 것처럼 말이다. 그토록 기다리던 태국 일대일 양육자반이 시작되었다.

나는 태국 일대일 양육자반을 섬기로 오신 목사님의 찬양소리에 녹아버렸다.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불덩어리가 타올랐다. 성령님이 찢겨진 나의 인격과 정서, 심령을 태우는 것 같았다.

첫 강의부터 엄청난 성령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34째 신앙인이다. 나름대로 주님께 헌신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일대일 양육자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무너졌다. 겉모양만 화려할 뿐 실체는 보잘 것 없는 나를 발견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다.

권사님께서 선반의 키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주셨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또 네 분의 권사님들이 양육자와 동반자의 좋은 만남과 나쁜 만남의 사례를 드라마로 보여주셨다. 그것을 통해 일대일 제자양육은 나눔이고, 공감이고, 즐거

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 떠온 하인만 알듯이 일대일 제자양육이 가진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본 사람만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나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나를 만나는 양육자들이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사랑과 열정으로 11명의 훈련생 모두가 끝까지 일대일 양육자반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온누리교회 이수공동체 최성석 목사님과 네 분의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중보기도 해주고 응원해 주신 장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커피나 차도 맛을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것처럼 일대일 제자양육의 맛을 조금이라도 알고 나니 빨리 동반자를 만나고 싶다. 동반자와 함께 일대일 제자양육이라는 아름다운 파티를 빨리 열고 싶다. 나는 그 파티를 준비하는 멋진 플래너가 되고 싶다. 그 파티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주인공으로 초대해 동반자와 함께 그분을 만나고 싶다.

별써 주님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다. “마리아 힘내! 넌 잘 할 수 있어”

■ 일본어예배부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일본 사람들이 감동 받고 눈물 흘렸다

/ 백재구 성도

일본어예배부에서 이와테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치바현에 있는 아치오 온누리교회로 향했다. 2011년 대지진 당시 쓰나미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이와테 지역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였다.

아치오 온누리교회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미니버스를 타고 이와테현 오오후나토 지역으로 향했다. 8-9시간이 걸려 사역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오오후나토 교회 무리야 목사님을 만나 사역에 대해 협의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한국음식을 맛보여주기 위해 위십과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총 4곳을 방문했다. 주로 오오후나토지역 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주택을 방문했다.

가설주택에는 대부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살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복을 입혀 드렸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 바로 인화 해주면서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일어로 불러줬다. 손을 잡고, 안아주면서 예수님의 사랑

을 전했다. 일본 사람들이 감동 받고 눈물 흘렸다. 팀원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준 덕분이었다. 한국에서 준비해 간 김과 일어 말씀이 새겨진 수건과 카드도 드렸다.

일본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교제도 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알 수 있었다.

날마다 이어지는 영적전투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지쳐 있었다. 리쿠젠타카다 지역에는 교회가 한곳밖에 없다. 모리타 목사님 부부는 성도가 거의 없는데도 50년 동안 그 지역을 지키고 계신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일본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격려가 꼭 필요해 보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일본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일본선교는 일본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교회와 협력하지 않으면 어렵다. 외교 문제를 떠나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일본선교를 도우면 하나님이 분명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번 아웃리치가 끝이 아니다. 일본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일본선교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할렐루야가 태어난 날

/ 남아시아 F국에서 선교, 기로 선교사 올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1989년 8월 28일생입니다. 무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006년 6월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인생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드리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2013년 9월에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저도 많이 사랑해줍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부부는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슬펐고, 쇠약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다시 한 번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자녀가 장성하면 주님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 주실 아이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지요.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함들어하는 아내를 보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지내면서 다른 47정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이야기를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면서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재촉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의미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칼럼 김선래 장로(가정사역공동체)

저출산 문제, 교회에서 답을 찾자!

1945년 해방되던 때만해도 한반도 인구가 2천만 명이 되지 않았다. 베이비붐 시대를 거치면서 최근에는 남북한 인구를 7천 5백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불과 70여 년 사이에 인구가 4배나 증가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적용된 축복받은 나라가 틀림없다. 그런데 15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기우로 그칠줄 알았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 공포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 문제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국가적인 위기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224개국 중에서 219위다. 그것도 모자라 매년 최저위를 향해 달리고 있다. 저명한 인류학자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교수는 UN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출산율에 근거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는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저출산은 나라의 존폐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6명이었다. 그러던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 11명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양육문제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저출산을 막고자 매년 11조라는 어마

어마한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경제적인 도움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지난 9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66조원이나 썼다. 그런데 한번 낮아진 출산율은 더 이상 높아질 기미가 없다. 재정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다. 이제는 종교계가 나서야 한다. 기독교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사회 복지 영역에서 첨병 역할을 해오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해왔다. 한국교회는 섬기는 노후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교회가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하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몇개의 한국교회가 발 벗고 나서서 영유아 양육에 헌신하고, 아이를 낳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노년층을 재교육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차별화된 어린이 보육원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교회도 부흥한다. 교회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몫을 하게 된다. 저출산 문제 교회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아니 찾아내야만 한다. 온누리교회가 가정사역을 통하여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견인차가 되었으면 좋겠다.



권사칼럼 김명수 권사(하나공동체)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하나공동체에서 탈북민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평소 북한선교에 관심이 있던 나는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고 이곳에 합류했다.

탈북민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은혜롭다. 그동안 나는 내가 겪은 고난과 고통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런 내가 탈북민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철저히 부서졌다.

탈북민들에게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 그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는 커다란 찬양소리와 부르짖는 기도 속에 그들의 현실이 녹아있는 것 같다. 탈북민들의 아픔과 외로움이 느껴져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들과 함께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게 됐다.

하나원을 수료하는 탈북민들과 나들이를 한 적이 있다. 나는 그곳에서 만날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 자매의 이름은 정국희다. 그녀는 28살에 홀로 두만강을 건넜다. 그리고 중국에서 10년 동안 살다 한국에 왔다. 그 자매는 참 예쁜 자매다.

국정원에서 만난 언니의 전도로 난생 처음 예배드리고 새벽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다. 특히 그녀는 찬양을 좋아한다. 그녀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했

다. 중에 두고 온 아들을 위해서다. 아들에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것이 많다고 했다. 그녀의 마음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뚫고 교회에 오느라 애쓰는 그녀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시면 좋겠다.

한국에 2만 7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있다. 그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북녘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북한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이다.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던 이소리엘 백성들 같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주체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그들을 정치나 교육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조금씩 알게 되는 북한 소식 때문에 전율하고 때로는 통곡한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탈북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 북한선교를 위해 부족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신앙에세이 최성석 목사(이수공동체)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나에게는 어릴적부터 영적인 멘토가 있다. 바로 우리 어머니다. 나는 4형제 중 막내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형님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은 모습과 말씀을 나에게 많이 보여주시고 해주셨다. 어머니는 집 근처 교회나 유명 목사의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주저 없이 나를 데리고 가셨다. 당시 부흥회는 지금의 부흥회와 많이 달랐다. 2박3일이나 3박4일을 교회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새벽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말씀을 듣고 부르짖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4형제를 모두 데리고(당시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가셨다. 그곳에서 첫째 형에게 기타를 치게 하고, 둘째 형과 셋째 형에게는 찬양을 하라고 하셨다. 나와 당신은 전도지를 나눠줬다. 그것이 나의 첫 노방전도였다. 조금 황당했지만 형님들도 나도 순종했다.

그날 이후 노방전도는 계속 이어졌다. 나는 중학교 3학년 초반까지 통기타를 치면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강남고속터미널 경부선과 호남선을 오가며 전도찬양을 했다. 나는 기타를 치고, 어머니는 찬양을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줬다. 어떤 날은 교회 친구 두세 명을 불러 함께 기타치고 찬양하

며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그 의문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사건이 되었다. 그 의문은 바로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전도에 대한 회의가 들었던 것이다.

당시 중학생이던 나는 질풍노도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심각한 위기상황이었다. 그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노방전도를 중단했다.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 그때를 회상하면 노방전도의 열매를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까웠던 것 같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했었다더라면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들곤 한다.

그래도 그때의 일이 좋은 경험이었다고 치부하던 즈음, 누군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영상은 호주 조지 스트리트에서 복음을 전한 어느 무명 전도자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 고향 시드니로 돌아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명씩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가 사람들에게 전한 말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짧은 메시지였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는 평생 복음을 전했다. 열매 없는 열심에 낙심하기도 했다. 그런 그에게 영국의 유명 부흥강사가 찾아와 전 세계를 다니며 들은 간증을 들려줬다.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해들은 메시지에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힌두교도에서 선교사가 되었다는 간증이었다.

그 영상을 보고 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한참을 울었다. 열매 없음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었던 내 모습을 발견했다. 낙담하고 있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러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전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듣게 하신 이가 알아서 하실 것이니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계속해서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 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베풀 의무가 없는 분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 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세의 마음이 있다면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를 보면 은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선하게 만들려고 미친 듯이 노력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그의 팔에 내어맡기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사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시하게 할 것이다’”(14절).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33장 초반부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모세의 기도

를 근거로 천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돌이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진노를 거둬달라고 하면 진노를 거둬주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주시고, 함께해 달라고 하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가까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으로, 은총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내 인생 여정에 친히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15~16절).

모세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여행은 의미가 없으니 우리가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인도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모세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삶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모세는 거

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증거를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24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그 어떠한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체험한 영광도 하나님의 뒷모습일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영광스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진노로부터 건짐 받고 용서받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17절).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여행하는 동안 친히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거칠고 위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주시면 두렵지 않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불지여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간신히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와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Talk Talk 열왕기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열왕기 8 :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열왕기에는 두 명의 유명한 선지자가 등장한다. 엘리야와 엘리사다. 엘리야가 활동한 장소와 시대는 북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 때(주전 약 874-853). 아합 왕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영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암흑기였다. 시돈 출신 아내 이세벨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대대적으로 일으켰다. 이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탄압을 받고 죽어나가는 형국이었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할 만큼(18:22, 19:10)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이런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이다. 그 이름의 뜻처럼 엘리야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다. 먼저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을 선언한다(17:1). 가뭄과 그에 따른 기근을 예언한 것은 아합의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18:18) 동시에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는 분임을 선언한 것이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또 태풍의 신 ‘하닷’으로도 불렸는데,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며 비와 눈을 내리는 신으로 생각되었다. 또 바알은 안개와 이슬의 두 딸을 거느리고 있으며 그의 아버지는 곡식의 신 다곤이다. 바알은 가뭄의 신인 모트를 이기고, 홍수를 관장하는 신 ‘암’ (바다라는 뜻)을 이기고 풍요를 관장한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살아계심을 두고 가뭄을 선포한 것은 누가 과연 비와 가뭄을 주관하는 참 신인지 가려보자는 것이다.

엘리야의 선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약 3년간 가뭄과 기근이 계속됐다(18:1).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셨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무도 찾지 어려운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신 후 까마귀를 통해 아침과 저녁마다(점심은 금식?)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말이다. “너희가 해질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출 16:12).

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눅 4:16에서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다. 엘리야는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밖에 없어서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는 과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과부는 엘리야를 선지자로 믿고 그의 말에 순종하여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먼저 그에게 대접했고, 엘리야의 약속처럼 기근 속에서도 풍요를 누리며 축복을 누렸다. 진정한 풍요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보여준 사건이다. 가뭄 속에도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드러낸 사건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엢 4:19). 이뿐 아니었다. 엘리야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림으로써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와 말씀이 진실

한줄 아노라 하시니”(17:24).

엘리야의 하이라이트는 ‘갈멜산 전투’다. 가뭄과 기근이 있는지 3년이 되어갔지만, 아합은 이 사태의 원인이 자신의 우상숭배에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물 근원을 찾아 나설 뿐이었다. 물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말이다! 아합 왕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3년째 계속되는 가뭄과 기근에도 불구하고 정신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다. 이런 영적인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본래를 보여주기로 하신다. 그것이 바로 갈멜산 전투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에 집합시켜 시합을 제안한다. 각자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 마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위에 바쳐진 송아지를 태우게 하자는 진검승부였다. 바알은 번개와 불을 주관하는 신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러나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예 즉각 불로 응답하셨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엘리야의 기도처럼 이렇게 고백한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18:39). 마침내 정신차린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되심을 눈으로 보고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토록 기다렸던 비가 내렸다. 돌아온 자들을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처럼.